



알링턴 성명서

성경번역에 대한

서문

우리는 원래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66권 정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한다. 그 66권 정경은 원본에 있어 오류가 없으며, 그들이 확인하는 모든 것은 정확무오하다. 성경의 원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본에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자신의 완벽한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마음과 더불어 언어 자체를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성경 번역을 통해 모든 인간의 언어로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문법 구조 및 단어와 구절의 의미적 범위가 각각의 언어마다 다른 것을 확인한다. 그러므로 번역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 원어 본문과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언어적 차이를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 속한 것과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잠언 11: 14) 하신 말씀을 확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번역 기관들과 성서공회들이 그들의 번역을 온라인을 통해서 최대한 공유함으로써 누구든지 언제나 자유롭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유한다.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번역된 성경에서 유익을 얻으며 또한 나중에 번역문을 개정할 때 참고할 좋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사역이 필수적임을 확언한다 (고린도전서 2:14). 더욱이,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삼으셨다 (디모데전서 3:15).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의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할 책임을 주셨다. 세계 교회와 지역 교회는 성경 원문이나 번역 대상 언어 또는 신학 지식 등 가치 있고 적절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지식은 신자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한 지체로 겸손히 동역할 때 충실한 번역을 하는데 유익을 준다. 번역본들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충실히 표현하고, 그 번역문을 사용할 지역 교회 성도들을 존중하며, 또한 세계 교회 안에서 평안의 매는 줄을 잘 유지하도록 번역 출판되어야 한다.

이상의 확언 내용에 비추어, 우리는 최근 일부 번역본에서 발생한 특정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처리 원칙을 제안한다.

제 1 조

번역자들은 명시적이거나 함의적으로 다른 종교의 신학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성경 원어 본문에 있는 의미, 맥락, 그리고 신학적 함의를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 예를 들면, 이슬람 신앙고백의 첫 말(لا إِلَهَ إِلَّا اللَّهُ “알라/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은 어떤 성경 번역에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백한 이슬람적 구문이면서 이슬람적 의미와 맥락을 가지므로 성경 내용의 충실한 이해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모슬렘들에게는 이슬람 신앙고백의 첫 절반 부분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절반 곧 “무함마드는 알라/하나님의 사도이다”를 기억하게 한다. 또한 이 구절은 삼위일체를 명백히 부인하는 이슬람의 절대적 단일신 개념을 전달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이 확언하는 유일신 신앙은 주 여호와,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신실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가르친다 (열왕기상 18:39, 시편 18:31, 고린도전서 8:4-6, 에베소서 4:4-6).

제 2조

모든 다양한 문화 속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하고 충만하게 알아야 하므로, 성경 원어 본문이 신자나 불신자에게 죄나 거짓을 지목하여 책망하는 경우에 번역본에서 이 책망을 회피하는 번역을 해서는 안 된다.

- 예를 들면, 만일 탕자의 아버지가 말한 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누가복음 15:22-23)는 말씀이 힌두교도에게 거침이 된다고 해서 번역자가 그 내용을 ‘교정하여’ 다만 아버지가 일반적인 축하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함으로써 송아지에 대한 언급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송아지 잡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중요한 증거 곧 사람들이 성경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거를 없애는 것이 된다.
-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우상 숭배자들이 이사야 44:9-20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우상에 대한 격렬한 비판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번역자는 그 어투를 부드럽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강한 어투 자체가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제 3조

성령님은 전체적인 뜻에 기여하는 많은 구절을 연결하는 여러 핵심 용어들이 포함된, 정교하게 짜여진 진리의 웅단을 창조하셨다. 번역자는 그 핵심 용어들을 번역함에 있어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로서 성경의 서로 연결된 의미를 최대한 보존하는 번역을 해야 한다.

- 예를 들면, 헬라어 단어 κύριος (“주”)를 번역자가 성부 하나님 또는 성자 하나님을 뜻한다고 판단하는 결정에 따라 그 단어를 다르게 번역해서는 안 된다. κύριος가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예, 베드로전서 3:12; 시편 34:15-16 참조) “알라/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예, 베드로전서 3:14-15, 이사야 8:12-13 참조) “주인(Master)” 혹은 “주(Lord)”로 번역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는 진리를 모호하게 만든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게 주인이시며 동일하게 주이시며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용어나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란 용어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그 용어들은 번역 대상 언어에서 인간의 아버지-아들 관계를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통상적 용어에 (“영적인 아들” 같은) 수식어를 더하거나, 혹은 일차적으로 가족관계 용어가 아닌 (“메시아”, “사랑 받는 자”, “왕자”, 혹은 “수호자”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 의미를 잃어버리게 한다. 인간의 아버지-아들 관계를 직접 표현하는 용어들은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자연스런 상속자이며, 아버지와 독특한 관계를 즐기며, 정확하게 같은 아버지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핵심 개념들은 함께 연결하는데 필요한 용어들이다 (마태복음 21:37-38, 히브리서 1:2-3, 골로새서 1:13-18). 그러한 용어들은 독자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 된 것 (요한복음 1:12-13, 로마서 8:14-29, 갈라디아서 4:1-7),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 (창세기 22:1-18),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마태복음 21:33-46 등),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누가복음 15:11-32),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다른 여러 중요한 사건들의 연결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오해가 생길 경우에는 기독교 교육, 혹은 성경 각권 개요, 각주, 용어 사전 같은 성경 해석 자료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결론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든 성경과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자료들이 위에 제시된 원칙들을 고수해야 한다고 확언한다.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곧 그것들이 개정되기를 촉구한다.

이에 서명한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성경 번역에서 이 원칙들을 따르기로 약속하며 또한 모든 번역자와 번역 기관들이 그와 같이 하기를 촉구한다.